

“한국 음식문화 우수성 유럽에 알린다”

농림축산식품부·aT ‘영국식음료박람회’ 참가
한국관 17개업체 구성 2800만달러 상담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영국 시장 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되는 ‘영국식음료박람회’(IFE UK 2017)에 참가한다.

지난 1979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번 박람회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영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국제식품전시회로, 57개국 1,350여 식품업체가 참가하여 농식품 현지 홍보와 시장 확대를 위한 최적의 무대다.

aT 한국관은 ‘전통과 건강, 혁신성’을 테마로 하여 유기농식품, 장류, 소스류, 인삼, 스낵류, 수산식품 등 총 17개 식품업체로 구성되며, 총 2천8백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목표로 박람회에 참가한다.

영국은 유럽에서도 외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식품 트렌드로 민감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해 현지 식품 트렌드로 손꼽히는 스낵류, 해조류, 차, 소스를 4대 전략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단순한 이미지 홍보를 넘어, 현지 바이어들과 소비자들이 한국식품을 구입(How to get)하고 활용하는 방법(How to use)을 중심으로 한 홍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TV 프로그램 마스터셰프코리아의 준우승자인 ‘국가비 셰프’와 함께 전략품목을 사용한 ‘K-Food 요리 시연 및 시식회’를 진행

행해 한국식품의 영국 현지 활용법을 전파할 계획이다.

한국 전통발효식품 특별홍보코너에서는 한국식품의 뿌리와도 같은 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과 활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참관객들이 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했다.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대 영국 한국농

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반등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 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이를 우리 농식품 소비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후속관리를 통해 수출증가 추세를 유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2015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식음료박람회(IFE UK 2017)에 참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홍보 부스에 외국인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모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어류종자 양식업체 경영개선 현장 클리닉

경남어촌특화센터
여수·고흥 3개업체 대상

한국어촌어항협회 경남어촌특화센터(이하 경남센터)가 지난 8일 여수시, 고흥군을 시작으로 어류종자 양식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현장 클리닉을 진행했다. <사진> 경남센터의 현장 클리닉은 올 하반기까지 계속된다.

이날 여수·고흥지역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클리닉에는 사료영양 분야 정관식 전남대 교수, 질병위생 분야 김위식 전남대 교수, 환경재해 분야 조주연 (주)해양수산연구개발연구원, 생산기술 분야 김철중 (전)여수산사사무소 김철중 연구원 등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종자업체의 배양시설, 영양 및 질병 상태 등을 살펴 개선 사항을 지적하고, 업체 대표와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전달했다.

고흥의 A업체는 전문가들에게 “갯벌 물의 유입, 태풍에 의한 정전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고민을 털어 놓았으며, 전문가들은 “갯벌 물의 유입 방지를 위한 정밀여과기와 태풍에 의한 정전



을 대비해 비상발전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찾은 여수의 B업체에서 업체 대표는 “인력이 부족해 작업에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영세업체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수질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장비를 갖추지 못해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높다”며 “중저와 관련 양식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농심올림봉사단 농촌일손돕기

농협광주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지난 17일 광주시 평동 명화마을에서 조선대학교 융접합과 학생들과 평동농협 김익찬 조합장 등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농심올림봉사단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이날 농심올림봉사단은 하우스철거작업과 퇴비 운반 작업, 마을 경로당을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농협광주본부와 조선대학교 공대 학생회는 지난 2014년 농촌사랑 자매결연식을

체결하고, 매년 농번기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보다 체계적인 영농철 인력지원에 위해 농심올림봉사단을 출범하고 지역 농업인 결으로 더욱 다가설 계획이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김 영현(4학년) 군은 “힘들긴 했지만학우들과 농촌에서 함께 땀 흘리며 그동안 몰랐던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봄맞이 전남농산물 행복장터 운영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는 지난 17일 농협 광주시 광산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1층 매장에서 ‘17년봄맞이 전남농산물 행복장터’를 개장, 19일까지 운영했다.

전남농산물 행복장터에서는 전남관내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 강진흑토마토, 곡성 딸기, 광양 애호박, 나주 배, 담양 대추방울토마토, 무안 양파, 보성 토마토, 순천 키위, 영광 고추, 영암 단감, 장성 사과, 진도 대파, 해남 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등의 50여 품목을 산지 직거래를 통해 시

중가격대비 최고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개장 행사에는 이흥목 농협전남지역본부장, 나규상 광주유통센터사장, 전남 관내 시군지부장, 조합장, 시군조합공동사업대표, 정구영 광주농산물물류센터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농협은 3월부터 시군연합조직11곳, 원예조경법인5곳에서 지역농산물을 상품화하여 수도권유통센터 등 직거래장터를 개점하여 연말까지 지역농산물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

■ 주간 증시 포커스

탄핵·美 금리인상 불확실성 해소
박스권 상단 뚫고 추가 상승 전망
IT·은행주·증권주 관심 필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통화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예상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FOMC 위원별로 금리인상 횟수를 알 수 있는 점도표에서는 올해 두차례 추가 금리인상과 함께 향후 점진적인 통화 완화정책이 확인되면서 코스피지수는 2100포인트를 훌쩍 넘기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불확실성 완화속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국내기업의 강한 이익개선추세와 미국금리인상에도 연초 달러당 1200원을 넘어섰던 환율이 1130원대까지 추세적으로 완화강세를 보임에 따라 외국인인 ‘바이코리야’를 보이며 코스피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국내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더불어 중요한 한축이라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는 3월들어 코스피기준 3조1900억원을 순매도했고 지난주에만 1조 1900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기관 순매도는 코스피지수가 장기 박스권 상단에 근접함에 따라 펀드투자자의 환매에 따른 투신권의 매도와 증권사의 기계적 이익 실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코스피지수가 2,16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2015년 4월 24일 이후 23개월여만이고 종가기준으로 2,160포인트를 상회한 날짜는 2011년 8월 1일 이후 단 하루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상승에 대해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의 차익실현매물이 지속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코스피지수의 역사적 고점 돌파시에도 코스닥지수는 시기총액 1위기업인 셀트리온의 약재성 루마로 지난주 6% 넘는 하락세를 보이며 약세가 지속되었고 필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기관은 코스닥시장에서 또다시 2천억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이며 코스닥시장 상승에 발목을 잡았다.

필자는 2월 20일 기고문에서 코스피지수 2,100포인트 상향돌파는 현재판결 확정과 미국의 정책결정이 구체화되는 지난주에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제 2,100포인트 안착에 성공한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상단에 근접함에 따라 박스권돌파와 함께 추세적인 상승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번주는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기 급등에 따라 상승속도가 완화되며 2015년지수 고점인 2,180선 돌파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역사적 고점인 2,230포인트 돌파를 통한 추세적인 상승가능성도 높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글로벌증시의 상승추세속에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피지수의 동반회복 가능성과 IT를 중심으로 수출개선과 중장기 실적개선기대, 그리고 지난해 사드보복으로 부각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3월 중국양회에서 확인되었듯이 중국측 한계산업 구조조정 및 재정투자 본격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수혜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글로벌투자자들의 코스피 투자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주에도 현시장 주도주군이 IT 및 소재/산업재업종 대형주와 함께 미국금리인상의 수혜업종인 은행주와 국내증시 강세장 도래와 거래대금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증권주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공매컨설팅
(투자금 100% 책임보장)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광산구 옥동 공장



대지 500평
건물 419평
최저가 776,000,000
감정가 1,108,000,000

서구 마곡동 토지



토지 202평
최저가 468,000,000
최고가 468,000,000

서구 용두동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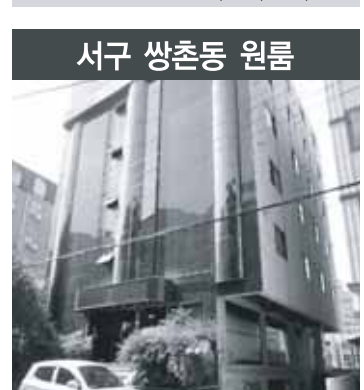
토지 1684평
최저가 256,000,000
최고가 256,000,000

서구 쌍촌동 대지



대지 151평
최저가 212,000,000
최고가 302,000,000

서구 쌍촌동 원룸



토지 86평
대지 340평
최저가 788,000,000
감정가 1,125,000,000

서구 쌍촌동 근린생활시설



토지 245평
건물 270평
감정가 2,919,000,000

운암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아주중용)
대지 110평
건평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지 6,000만원
월세 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금 매매 6,2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00명 모집
광주법원 입구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